

2월의 기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8절>



- 1. 2019년 새해에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2. 2019년 기해년에도 계속해서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충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4.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5.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삶의 환경은 주어진 것보다 만들어가는 것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꿈은 깜짝 놀랄 세계를 만들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말은 천지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4대 사막 중 하나인 '마오우쑤 사막'에 '징베이탕'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은 걸어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전혀 없는 외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인위전'이라는 여인과 그 남편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린시절 행상인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사막 한 가운데 버림받은 이 여인은 사람에게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사막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물도, 풀도, 사람의 발자국도 없던 1400만 평의 사막이 20년이 흐른 후 80만 그루의 푸른 나무와 농장, 과수원이 있는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에 도전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이 여인을 보고 싶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인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을 피해 숲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이 숲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삶의 환경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에 낙심하여 절망할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생각을 바꾸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하니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건 정말로 중요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가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써 말을 주셨습니다. 말은 그 고백대로 에너지가 발산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말로써 흥하게 되고, 말로써 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오사카순복음교회 (정대원목사),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 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정환,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이태원 내과의원, 정경자, 한사랑순복음교회(박유성목사), 최인철,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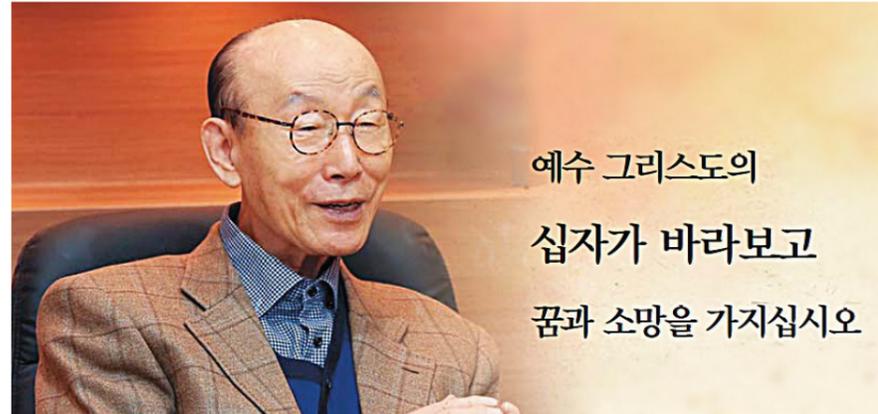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2019년 꿈과 희망을 말하다 -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 지금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람은 마음에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를 받으려면 교회를 잘 다녀야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도 부지런히 배울 때 변화되고 새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목사님은 새해 어떤 꿈과 소망을 품으셨는지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종복음과 삼중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가르치는 일을 즉각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젊은 세대를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더 새로운 세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 목사님의 올해 기도 제목과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일입니다.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면 이 사회가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2019년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꿈과 소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도록 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꿈이 있으면 예수님의 새로운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 새로운 것을 마음에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엇이 이뤄질지를 꿈꾸고 바라보십시오. 꿈꾸고 소원이 이뤄질 것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위해 우리 기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쁨과 감사로 드린 신년 축복 성회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거룩한 꿈 갖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2019년 1월 1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드려진 신년 축복 성회는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리가 없어 돗자리와 간이 의자를 펼쳐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복도 계단에 앉거나 서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무척 많았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성도들의 열정은 뜨거운 기도의 함성으로 성전을 가득 메웠다.

성도들은 말씀으로 응답 받고 감사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본문으로 '새로운 시작'에 대해 설교하며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한 조용기 목사는 "2019년이라는 코스를 출발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한다. 새해 새 출발을 하려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 실패했던 과거를 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 나가야 하며 담대한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올 한 해 모두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가슴에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라.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두가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며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했다.

행복한 삶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첫째가 영이요, 둘째가 혼이요, 셋째가 육체입니다. 그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1. 영혼의 잘됨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혼이 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성경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장 23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영이 죽은 영이 되었고, 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요 8장 3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이 죽은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저술가 안셀름 그륀(A. Grun)의 책에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뚫지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자신을 좇아오는 그림자를 자기의 그림자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림자를 싫어하는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하는 여자가 그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건데, 계속 따라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달리다가, 결국 그 사람은 땅에 고꾸라져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주변의 나무 그늘로 들어갔더라면,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이야기의 죄로부터 도망치려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죄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로 들어올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막 8장 36절)라고 했습니다. 목숨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목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생명으로 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육체를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절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2. 마음의 강건함

둘째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헨리 워드 비처(H. W. Beecher)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수고하느라 고생이요, 일을 끝내고 결과를 걱정하는 것이 고생이요.” 믿음이 없으면서 늘 이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할 수 없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약하다. 실패자다.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힘이 그 속에서 넘쳐나서 결국 실패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생각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말이라도 고백만 잡으면 사나운 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그 생각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마귀에게 붙잡히면 온갖 악한 것들이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생각을 잘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쇠가 자석이 끌려가듯이 저절로 죄를 향해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생각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 변화된 생각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에는 오래돼 습관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누우면 주님의 십자가 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주를 청산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오중복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명령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순식간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3. 몸의 강건함

셋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날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죄 때문에 병이 왔을 때는,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병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것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에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장 2절)”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1월의 성회들”



1986년 호주성회



1987년 호주 교회성장 세미나와 부흥성회

개최일자	개최국가	참석인원(명)	특징
1979년 01월 15일~ 2주간 일정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17,000	2주간 일정으로 각 나라를 순회하면 성회를 인도 함.. 중남미 사상 최대 성회 기록
1980년 01월 15일 ~ 17일	일본(동경)	4,000	6년 동안 휠체어 여성 고침 받고 간증 귀머거리, 병어리 고침 받은 성령 역사 나타남
1980년 01월 21일 ~ 26일	대만	3,000	교역자 예배 때 마다 성령의 역사 강하게 나타남
1981년 01월 06일 ~ 08일	일본(동경)	4,000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 전개. 매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증거함
1981년 01월 20일 ~ 28일	미국 워싱턴 DC	1,000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참석 /만찬회 특별초대 종교지도자와 정치인 참석한 자리 설교 종교지도자들만을 위한 특별모임 참석 NRB-NAE 초청 설교
1983년 01월 17일~20일	일본(동경)	2,500	세미나 및 평신도를 위한 부흥집회
1983년 01월 23일 ~ 2월 04일	미국	40,000	플로리다 교역자를 위한 교회성장세미나 및 부흥 성회
1985년 01월 17일 ~ 18일	일본(동경)	4,000	일본 일천만 구령을 위한 성회
1986년 01월 09일 ~ 18일	호주	19,000	남 호주150주년 기념 특별 성회 호주교민을 위한 성회
1987년 01월 06일 ~ 13일	호주	32,000	교회성장세미나 일반인들을 위한 부흥 성회
1989년 01월 11일 ~ 17일	미국	15,000	부흥회로써 하와이 최대 집회로 기록
1991년 01월 23일 ~ 29일	파나마, 콜롬비아	30,000	남미 최대 규모의 개신교 부흥 성회 기록
1992년 01월 13일 ~ 16일	인도네시아	450,000	전국민의 94%가 회교도 신도이며 6%가 힌두교신자로서 이번 집회에서 30,000명이상 결신함.
1995년 01월 09일 ~ 11일	호주	30,000	연일 센터가 가득 참, 구체적인 기도예 대해 설교
1995년 01월 25일 ~ 26일	말레이시아	1,000	아시아 기독교 지도자 대상 세미나
1999년 01월 27일 ~ 28일	미국	1,500	미국교회에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킨 성회
2016년 01월 11일 - 13일	일본(동경,오사카)	3,000	신년 축복 성회



1989년 하와이 대성회



1992년 인도네시아 성회